

# 車 전장에 홀린

삼성  
현대차  
LG

# ‘디지털 콕핏’에 꽃히다

삼성전자, 하만과 협업 통해 올해 초 디지털 콕핏 공개  
현대모비스 ‘코나 EV’에 7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적용  
LG전자, LG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 중심 콕핏 개발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수한 하만과의 협업의 통해 올해 초 열린 세계가전박람회(CES)에서 ‘디지털 콕핏’을 공개했다. CES에서 공개됐지만 상용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삼성전자

#이소윤씨가 퇴근 후 자동차에 올라타 ‘하이, 마이 카’라고 말하자 음성인식 시스템이 가동되며 시동이 걸린다. 시동과 함께 운전 자석에서는 주행에 필요한 속도계와 운행정보, 내비게이션 등이 표시되며 본격 운행이 시작된다. 저녁과 내일 일정 확인을 위해 음성으로 텔레매틱스 연결된 다이어링을 불러내 체크하고, 날씨 정보를 확인한다. 오늘 저녁 친구와 집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확인하고 음성으로 집에 있는 로봇청소기로 하여금 집을 청소하게 한다. 또 차안 디스플레이로 냉장고 식재료를 확인하고 부족한 식재료는 마트에 주문하고 집 배달을 부탁한다.

미래자동차 안에서나 벌어질 것 같은 이 같은 상황이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전자가 선보일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 콕핏은 비행기 조종석을 의미한다. 자동차에서도 운전석 및 조수석 등의 앞 좌

석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기존 운전석의 아날로그 계기판과 센터패시아(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중앙 전면부)의 오디오와 매립형 내비게이션 등이 주된 변화의 핵심이다. 특히 미래자동차의 전장기술의 핵심으로 꼽힌다. 콕핏은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되는 사물들을 자동차에 넘어 집안의 기기들과 모바일로 확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 환경 정보를 보다 간결하게 제공해 안전성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수한 하만과의 협업의 통해 올해 초 열린 세계가전박람회(CES)에서 ‘디지털 콕핏’을 공개했다. 콕핏에는 삼성전자의 기술이 그대로

적용됐다. 운전석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조수석에는 승객용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디스플레이로 적용됐다. 운전석 디스플레이는 속도계, 주유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등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승객용 디스플레이에서는 영화감상이나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다. 운전석과 조수석 중앙에는 빅스비·음량 등을 조절할 수 있는 OLED ‘노브’와 공조·조명 등을 조절하는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있다. 또 백미러와 룸미러를 대체하는 MRVS 디스플레이도 갖췄다. 각 디스플레이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연결된다. CES에서 공개됐지만 상용화는 언제든

가능하다. 삼성전자 전장사업팀 박중환 부사장은 “디지털 콕핏은 차세대 카라이프를 보여준다”며 “하만이 이미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을 사용해 자동차 업체가 채택만 하면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달부터 양산하는 코나 일렉트릭(EV)에 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클러스터를 적용한다. 클러스터는 속도·주행거리·경고 알람 등 주행정보를 표시하는 계기판으로 운전자와 자동차를 연결하는 콕핏의 핵심 부품이다. 이번엔 양산을 시작한 7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표준플랫폼 인오토사(AUTOSAR)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고해상도(1280×720)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시인성을 높이고, 중앙처리장치(CPU) 소프트웨어를 독자개발하는 등 핵심기술 자립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열린 세계가전박람회(CES)에서도 현대모비스는 차세대 콕핏이 적용된 다양한 미래차 디스플레이를 선보인 바 있다. 운전석을 중심으로 각각 클러스터, 스티어링휠(운전대), 룸미러, 콘솔 박스에 위치한 4개의 디스플레이다. 현대모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연구소장인 양승욱 부사장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와 IT업체들이 각자 차별화된 전략으로 자율주행차용 차세대 콕핏 개발 경

## 해수부, 스마트항만 구축 본격화

세계 동향 조사·정책방향 설정  
중 양산항 4단계 터미널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부산 신항을 방문해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모형 앞에서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질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 과제인 ‘항만 산업’ 첨단화 추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스마트항만 관련 세계 동향을 조사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상하이 양산항 4단계 터미널을 방문한다. 지난해 12월 개장한 상하이 양산항 4단계 터미널은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는 하역작업부터 트럭에 컨테이너를 싣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터미널로 칭다오항, 서먼항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개장된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세계 주요 항만들은 하역작업의 자동화 등을 통한 스마트항만의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동화 터미널 도입 요구와 함께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위해 부산항 신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항만자동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추세이나, 일자리 감소에 대한 걱정도 있으므로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국가의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 혁신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이 중 해양수산 분야는 스마트해상물류와 스마트양식, 어촌뉴딜300이 혁신성장과제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해상물류는 자율운항 선

박과 초고속 해상교통망(e-Navigation), 스마트항만을 연계해 해상물류를 첨단화하기 위한 과제, 그 중에서도 육·해상 물류의 중심인 항만의 스마트화는 핵심과제로 꼽힌다. 해수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최신의 자동화시설을 둘러보고, 국내에서 경쟁이 되고 있는 자동화항만의 생산성과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등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상하이 양산항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존 일자리에 대한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 로드맵을 연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항만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공수 뒤바뀐 삼성바이오-금감원

# 삼바 “회계규정 위반 근거 알려달라”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에 ‘회계처리 규정 위반’ 근거를 알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 홈페이지에 김태환 사장 명의의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2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조치사건통지서에는 분식회계 판단과 관련한 구체적 근거 및 사실 언급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적시하지 않아 회사가 이에 반박하는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 오는 17일 감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 내린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논란이 불거진 이래 모든 사안을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해왔다. 김태환 사장은 “지난 11일 금감원에 ‘조치사건통지서 근거사실 공개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입장을 소명해 관련 혐의를 벗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금감원이 근거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감리위에서 소명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공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인플레이션 중간단계… 서비스물가 지속 상승 우려

>> 1면 ‘물가 미스터리’서 계속  
◆“점증하는 인플레이션 기대”…금리인상 가능성?  
체감물가는 고공행진이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2%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하향조정(1.7→1.6%) 하면서도 “내년에는 물가 목표치(2%)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금리 결정을 할 땐 현재보다는 1년 후 물가를 더 우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준금리 인상의 고려 요인으로 물가보다 소비·투자·고용 등 실물지표를 더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낮은 물가 상승률이 금리 인상의 제약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물지표 개선세만 확인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8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보면, 1분기 국내총생산은 395조9328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분기보다 1.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앞으로가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9.8을 기록해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점(100)을 밑돌았다.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지난해 7월 101.2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3월에 100.4까지 하락했다. SK증권 안영진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쯤 된다”면서 “그 순위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각종 제품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는 조짐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